

# 새 희망을 꿈꾸며...



조정신청인

저는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임신한 어린 엄마들이 따뜻한 울타리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기관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직업의 중단,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들 어린 엄마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그 후에는 사회에 재적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사회복지사로서 어린 엄마와 아기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세월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때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의 시간은 저에게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한 언론사가 10대 미혼모(A양)의 아버지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우리 기관이 마치 불법을 행한 것처럼 연달아 기사화하였고, 주변으로부터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소년원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딸이 임신했다는 것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A양의 보호자로 알았던 A양의 할머니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했으나, A양의 아버지는 보호자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미혼모시설에 입소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이 A양에게 입양을 중용하였고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여 7건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관공서 민원제기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청에 제가 속해 있는 기관 및 직장인 저와 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는 구청을 비롯한 기관에 정보공개요청 등을 하였고 두 달 사이에 우리 기관을 상대로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내며 끝없는 공격과 비난을 하는 통에 더 이상 당해낼 힘조차 없이 지쳐만 갔습니다. 7개의 기사가 연달아 나가는 동안, 저는 전쟁 같은 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새벽녘까지 잠을 이룰 수 없어 하얗게 지새는 나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해 온 일들이 과연 이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

었나 싶어 절망적인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신청가능 날짜를 며칠남겨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심리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착하여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드디어 중재위원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 입장을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며 사건내용 등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목이 메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만 같아 정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긴 심리 끝에 비로소 기사를 삭제한다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한 후에야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과연 나 혼자였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부당함을 토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하려 노력하시는 중재위원들과 조사관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던 언론중재위원회 지역 소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도와주는 파스한 손길에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길을 어린 엄마들에게 뻗어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생명을 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을 다잡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움을 준다면, 지금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리라 확신합니다.

\* 편집자 주 : 필자의 요청으로 성명 및 기관명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